

LOCAL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고흥, 인도네시아에 농수산물 수출 거점 확보

무안, 수산물 소비 촉진 앞장 29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무안군은 오는 2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수산인의 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23개소가 참여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총 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마무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심리가 고취되길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화순, 청년공동체 활성화

5팀 선발...내달 7일까지 접수

화순군은 4월 7일까지 지역사회의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청년의 역량을 강화해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49세 이하로 청년 5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팀, 법인·단체로, 구성원의 화순군 거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4월 7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청년공동체 총 5팀을 뽑는다.

심사 결과 사업에 선정되면 1개 팀당 1년간 활동 지원비 600만원이 지원된다. 동일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모임, 단체의 운영비·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공동체는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자바슈퍼푸드사와 500만달러 규모 수출 협약체결 김·미역·유자 판매...가스오부시 결합 제품 생산도

고흥군이 인도네시아에 지역 농수산물 수출 거점을 확보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농수산물 식품가공 기업인 자바슈퍼푸드사(대표 필립베)와 500만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자바슈퍼푸드사와의 협약 체결 전부터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이번 수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자바슈퍼푸드사는 농수산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14년 설립돼 연 매출 720억원을 기록했다.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 등에서 450여종의 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군은 자바슈퍼푸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마른김뿐만 아니라, 미역, 유자 가공품 등 다양한 농수산물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바슈퍼푸드사는 고흥산 김과 인도네시아의 가스오부시를 결합한 김자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김자반은 고흥의 김 50%와 인도네시아의 가스오부시 20%를 결합해 독특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상품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중국, 아프리카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러한 김자반 상품 개발은 단순히 두 국가의 농수산물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의 우수성을 살려



고흥군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슈퍼푸드사와 고흥 농수산물 500만달러 수출협약 체결했다. 왼쪽 4번째부터 인도네시아 자바슈퍼푸드사 필립베 대표, 공영민 고흥군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되면서 농수산물 수출과 상호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립베 자바슈퍼푸드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바슈퍼푸드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흥군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더욱 널리 알리고,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고흥군은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수출 거점을

마련했다”며 “고흥산 김과 인도네시아의 가스오부시를 결합한 김자반이 두 나라의 농수산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축제는 끝났노 봄은 흥매하는 여전 신안군이 주최한 '2025 섬 흥매화 축제'가 최근 막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화 중인 흥매화로 일지라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1004섬 톨립흥매화정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흥매화의 추억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군

김한중 군수 '일석이조' 행보...몽골과 협력 강화

장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확대·수출계약 체결

장성군이 계절근로자 채용 확대와 농특산물 수출 계약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김한중 군수가 몽골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을 확대해 인력난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르갈란트, 울지트군과 협약을 맺었다.

앞서 군은 지난 2023년 4월 몽골 중서부 헨타이아막 지역 4개 군과 외국인 계

절근로자 송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농특산물 판로도 넓혔다. 군은 몽골 유통업체(Gegeen Undur Gumsed co.)와 26개 품목, 100만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몽골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Hunnu)에서는 장성산 과일, 냉동식품 등을 몽골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판촉행사도 가졌다. 과일과 냉동김밥, 과자 종류가 큰 호

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장성지역 농식품기업과 농업, 몽골 구매자 간 상담 시간을 마련하는 등 장성산 농특산물의 몽골시장 진출을 타진했다.

또한 군은 몽골생명과학대학교 교수진과 업무협약을 맺고, 몽골 대학생들에게 장성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몽골 수출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해남, 경로당 보험 통해 어르신 안전 강화

597개소 화재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해남군은 597개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전체 경로당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별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누락없이 전 경로당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와 발생 시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낙상사고 등으로 발생한 9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처리되도록 관리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함평, 농촌 공동체 '행복함평 활력찾기 워크숍' 개최

함평군이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9월까지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해 '행복함평 활력찾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난 22일 손불면 수연마을, 언다면 삼정마을을 시작으로 '행복함평 마을학교 씨앗방' 교육을 수료한 총 9개 마을이 참여한다.

참여 마을은 9월까지 주민역량 강화 교육, 마을 테마 발굴 워크숍, 선진지 견학, 마을 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 등 마을별로 총 4회 걸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